

PA-006

## 뜻거름작물 헤어리베치를 활용한 친환경 휴경지 관리 방법

김민태<sup>1\*</sup>, 신수현<sup>1</sup>, 정건호<sup>2</sup>, 이재은<sup>1</sup>, 박정화<sup>1</sup>, 양운호<sup>1</sup>, 최종서<sup>1</sup>, 이대우<sup>1</sup>

<sup>1</sup>경기도 수원시 수인로 126,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

<sup>2</sup>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업생명로 300, 농촌진흥청 대변인실

### [서론]

휴경지 면적은 85년도 0.9%에서 2016년도 3.2%로 증가 하였으며, 최근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경 시 ha당 280만원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2019년도에 1,500ha를 시행하였으며, 휴경지는 경작지에 비하여 공익적, 생태적 기능이 저하하며 방입에 따른 관리소홀로 농지기반 붕괴 및 경관 악화 우려, 병해충 발생 등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.

### 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휴경지의 친환경 관리를 위하여 휴경지의 잡초 발생 현장을 조사 하였으며, 헤어리베치 재배에 따른 잡초발생 억제 및 토양 이화학적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뜻거름작물 헤어리베치를 9월에 파종하고 이듬해 재생 후 잡초 발생양상 및 토양 이화학적성을 조사하였다.

### [결과 및 고찰]

논·밭의 휴경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식생량이 증가 하였는데, 휴경 1~2년에는 피, 여귀, 망초, 바랭이 등 일년생 초종이 우점하였고, 휴경 3~4년에는 썩, 부들, 왕달맞이꽃 등 다년생 초종이 우점 하였으며, 휴경 5년 이상에서는 버드나무, 아까시나무 등 목본류가 우점 하였다. 뜻거름작물 헤어리베치를 9월에 파종하면 이듬해 봄에 재생하여 잡초가 발생하기 전에 헤어리베치가 우점 하여 잡초발생을 억제 하고, 5월 초순에서 6월 중순까지 1개월간 개화하여 경관조성 및 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, 헤어리베치를 3년 재배 하면 토양 유기물 함량이 0.2% 증가 하고, 토양 공극률이 0.4% 증가하여 토양이화학적성이 개선되어 지력이 증진된다.

### 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(과제번호: PJ0134600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\*주저자: Tel. 031-695-0643, E-mail. kmt6108@korea.kr